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

Colomb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 5.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 차

I. 원조 성과평가	1
II. 수원국 분석	4
1. 수원국 개발현황	4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9
3. 수원체계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	9
III. ODA 추진시 고려사항	11
IV.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2
1. 기본방향	12
2. 중점협력분야	14
3. 분야별 지원방안	22
4. 결과를	25
V. 이행전략	27
1. 협력방안	27
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28
VI.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29
1. 모니터링 방안	29
2. 평가 방안	30

1. 원조 성과 평가

□ 콜롬비아 제1차 국별협력전략(2012-2015) 개요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1차 국가협력전략(이하 CPS)은 콜롬비아 국가 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0-2014)의 수행에 긴밀히 협력하고 성장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둬.
- 중점협력분야로서 ① 농촌지역개발 ② 중소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③ 공공행정에 전체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하며 과학기술 및 범분야적 요소를 통합하여 지원함.

<콜롬비아 제1차 CPS의 중점협력분야별 자원 배분 계획>

구분		자원 배분 비중	
분야	내용	무상	유상
중점협력분야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해소, 빈곤 퇴치 및 MDGs 달성	35%	70%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35%	
	ICT를 활용한 행정제도 구축 및 정부의 치안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사회개발에 기여	-	
기타		30%	30%
계		100%	100%

□ 우리나라의 지원현황

- (총괄) 지난 5년(2010-2014)간 6,300백만불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 (집행액 기준).

<한국의 對콜롬비아 지원 추이(2010-14)>

(백만불, 실질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상	집행	7.61	8.41	5.22	7.67	20.14	49.05
	(승인)	2.95	1.84	12.39	4.47	-	21.65
유상	집행	-	-	0.33	13.50	10.59	24.42
	(승인)	-	-	-	-	-	0
계(집행)		7.61	8.41	5.55	21.17	30.73	73.47

자료: OECD 통계, 국무조정실 자료 참고하여 작성

- 무상원조 사업으로 동 기간 총 4,9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연평균 980만 달러에 해당함.

* 프로젝트 사업 6건, 개발컨설팅 사업 3건,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등 추진

- 유상원조 사업은 동 기간 총 2,442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연평균 488만 달러에 해당함.

- (분야) 2010-14년간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은 교육 분야(4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농업, 기타 다부문, 공업, 환경보호, 무역 등의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한국의 對콜롬비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

(백만 달러, 집행액, 실질가격)

구분	교육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농업	기타 다부문	공업	환경보호	무역
금액	28.85	14.43	5.59	3.83	2.80	1.80	1.11	0.82
비율	45.55	22.80	8.81	6.05	4.43	2.84	1.75	1.29

자료: OECD 통계, 국무조정실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2014년도 수치는 국무조정실 집계(잠정실적)를 참고

□ 전략이행여부

- 1차 CPS 기간(2012-14년) 중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은 69.12%로 목표치인 70%달성에 다소 미달한 것으로 파악됨.
 - 2012-14년간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은 집행액 기준 884만 달러로, 전체 지원(4,175만 달러)의 21.2%에 그쳤으나, 2015년 동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그 비중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 콜롬비아 농촌지역 빈곤퇴치사업(2011-16/500만 달러), 콜롬비아 산업클러스터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 (2011-2017/300만 달러), 콜롬비아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 콜롬비아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과정 등
- 유·무상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이 이행되지 않음.
 - 유상 원조의 경우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 무상 원조는 농촌(8%), ICT(2.4%),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58.7%)*에 각각 지원되었음.
 - *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는 교육 분야 집행내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합산함.
- ODA 사업 추진 시 콜롬비아 정부기관의 더딘 행정절차와 ODA 사업추진 범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 간의 인식 격차가 사업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II.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반

- (개황)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하여 베네수엘라,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2014년 기준 4,620만 명임.
- (정치) 2014년 연임에 성공한 산토스 정부는 치안강화, 빈곤감축, 고용 창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반부패법, 내전 피해자 보상, 교육 및 의료개혁 등 사회 안정을 위한 각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2014년 6월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으로 현 정부체제는 2018년까지 지속될 예정임.
- (빈곤감소)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000년 66%에서 2011년 45%까지 감소하였음.
- (MDG 달성) 8개 목표 중 보편적 초등교육이 유일하게 달성 가능한 분야임.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산모건강증진,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퇴치라는 진전을 보였으나, 2015년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경제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국내경제	GDP	억 달러	3,363	3,698	3,784	4,001	4,271
	1인당 GDP	달러	7,305	7,938	8,031	8,394	8,859
	경제성장률	%	6.6	4.0	4.7	4.8	4.5
	실업률	%	10.8	10.4	9.7	9.3	9.0
	소비자 물가 상승률	%	3.4	3.2	2.0	2.8	2.6
대외거래	경상수지	백만 달러	-9,715	-11,590	-12,410	-15,410	-16,150
	FDI 순유입	"	5,101	16,135	9,120	11,934	13,237
	외환보유액	"	31,386	36,444	42,758	44,14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4)

주: e=estimate, f=forecast

- **(거시경제)**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의 소비시장인 콜롬비아는 내수 증가, 광업 및 에너지 분야의 생산증가로 고성장을 지속해오다 2011년 이후 유럽 및 미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산업구조)** 콜롬비아의 산업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광업, 건설업,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콜롬비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하지만 높은 대미 무역의존도 및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구조는 개선이 필요함.
 - * 산업구조 (2013) : 서비스업 56%, 제조업 38%, 농업 6%
 - * 주요수출품 (2013) : 석유, 커피, 석탄, 에메랄드, 니켈, 바나나
 - * 주요수입품 (2013) : 산업용기계, 운송장비, 소비재, 화학제품, 제지
- **(대외거래)** 상품수지는 석유, 석탄, 커피 등의 수출로 작지만 흑자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기업의 해외송금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외채)** 콜롬비아는 2013년 GDP 대비 총 외채비율이 35.1%로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의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계속 증가하여 2013년 428억 달러를 기록함.

- (국가신용등급) 콜롬비아 국가신용등급은 OECD 4등급(2014), S&P BBB(2015), Moody's Baa2(2015), Fitch BBB(2015)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임.

□ 사회

<콜롬비아 주요 사회지표>

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인간개발지수*	0.655	0.680	0.706	0.710	0.708	0.711
1인당 GNI (Atlas, 달러)	2,340	2,930	5,480	6,100	7,020	7,590
초등학교 등록율	119	120	115	-	-	-
초등학교 수료율	95	104	113	-	-	-
중등학교 등록율	72	82	96	97	93	93
중등학교 수료율	-	75.2	91.3	89.4	85.8	71.7
모성 사망률(10만 명 당)	130	97	85	-	-	83
아동 사망률 (5세미만, 1,000명)	22	21	19	18	17	17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 인구 비율	90	91	91	91	91	-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75	77	79	80	80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 지난 10년간 소득은 세 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개선이 크지 않음.

* 인간개발지수 (2013) : 187개국 중 98위

- 2005-13년간 1인당 GNI는 2,340달러에서 7,590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미흡함.

- (균형발전)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지역·인종간 빈곤 격차가 뚜렷한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었음.

* 지니계수 (2012) : 0.535

- (교육) 2000년 이후 초등학교 등록률 및 수료율은 계속하여 증가했으며, 중등학교 등록률도 높은 수준임.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정 등록률은 2008년 기준 총 35.3%임.

- (보건) HIV/AIDS 발병 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결핵 발병률은 크게 감소했음.

- * HIV/AIDS 발병률 : 1%(2000) → 1%(2013)
- * 결핵 발병률 : 10만 명당 43건(2000) → 32건(2013)

□ 인프라

- (일반) 콜롬비아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08위*로 전반적으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며 도로(126위), 철도(102위), 항만(90위) 부문의 인프라 개발이 취약함.

- * 2014-2015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4(144개국 중 108위)

- (교통 분야) 전체 고속도로 142,000km 중 31%가 정부소유의 고속도로임. 다양한 운송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낙후되어 수송능력 개선이 시급함.

- (도로) 국토 면적에 비해 총 도로 길이가 짧아 도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함.

- * 국토면적(2008) : 1,141,748km²
- * 총 도로 길이(2008) : 164,183km
- * 국토면적당 도로 길이 : 143.8 m/km² (브라질: 205.8 m/km² / 멕시코: 187.0 m/km²)

- (철도) 철도의 길이는 총 3,000km이며 그 중 1,793km만이 운영 중임. 중남미 역내 국가들과 연결된 철도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임.

- (항만) 항만시설이 부족하고 항만처리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수출입 화물처리 비용이 높음

- * 수출비용(2012) : 2,270(달러/컨테이너)
- * 수입비용(2012) : 2,830(달러/컨테이너)

- **(통신)**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중남미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 통신시장은 인터넷, 유선통신, 무선통신, 텔레비전 서비스를 취급하는 기업 간 정보통신 서비스 연합에 따른 독과점 현상이 문제로 지적됨.
- **(에너지)** 경제성장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에 714GWh 규모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음.
 - * 전력 생산(2011) : 57,265(백만 kWh)
 - * 전력 소비(2011) : 47,802(백만 kWh)
 - * 1인당 전력소비(2011) : 1,047(백만 kWh)
- **(상하수도)**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리 미흡으로 많은 양이 누수 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상하수도 시설은 총 1,017개로 시설 노후화, 운영시스템의 낮은 효율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비율 : 75%(2000) → 80%(2012)
 - *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 90%(2000) → 91%(2012)

□ 범분야

- **(환경)** 콜롬비아는 세계 생물다양종의 10%를 보유하며 국토의 50%가 자연림이나, 기후변화(엘니뇨, 라니냐, 태풍, 홍수) 및 벌목, 불법 농작물 재배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 및 수질 토양 오염이 심각함.
- **(양성평등)** 콜롬비아의 양성평등은 낮은 수준으로 149개국 중 92위*를 기록했으며 공무원의 42%가 여성이나 여전히 정치부문 참여 등 성차별이 존재함.
 - * 2013년 콜롬비아 성불평등지수: 0.534(149개국 중 92위)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2014-2018’에 대한 의회의 최종 승인이 2015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동 계획이 시행되기까지 대통령 승인만이 남은 상황임.
-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콜롬비아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 수립한 공공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문서. 국가기획처에서 작성, 공유, 평가 및 이행을 담당. 콜롬비아 1991년 헌법이 국가개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투자 계획을 규정함.
-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평화, 평등, 교육을 3대 축으로 하여 ① 평화구축을 위한 치안 및 사법제도 확립, ② 인프라 및 산업 경쟁력 강화, ③ 녹색성장, ④ 사회계층간 이동 촉진, ⑤ 굿 거버넌스, ⑥ 농촌지역 발전을 6대 전략으로 설정함.
- 국가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해 향후 4년간 703.9조 페소(약 2,93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최종계획서는 전체 26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 체계

□ 수원 체계

- 콜롬비아 대외원조 수원정책과 조정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대통령실이며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MH) 및 국가개발계획청(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DNP)이 유상원조를 담당하며, 국제협력청(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APC)이 무상원조를 담당함.

□ 공여국 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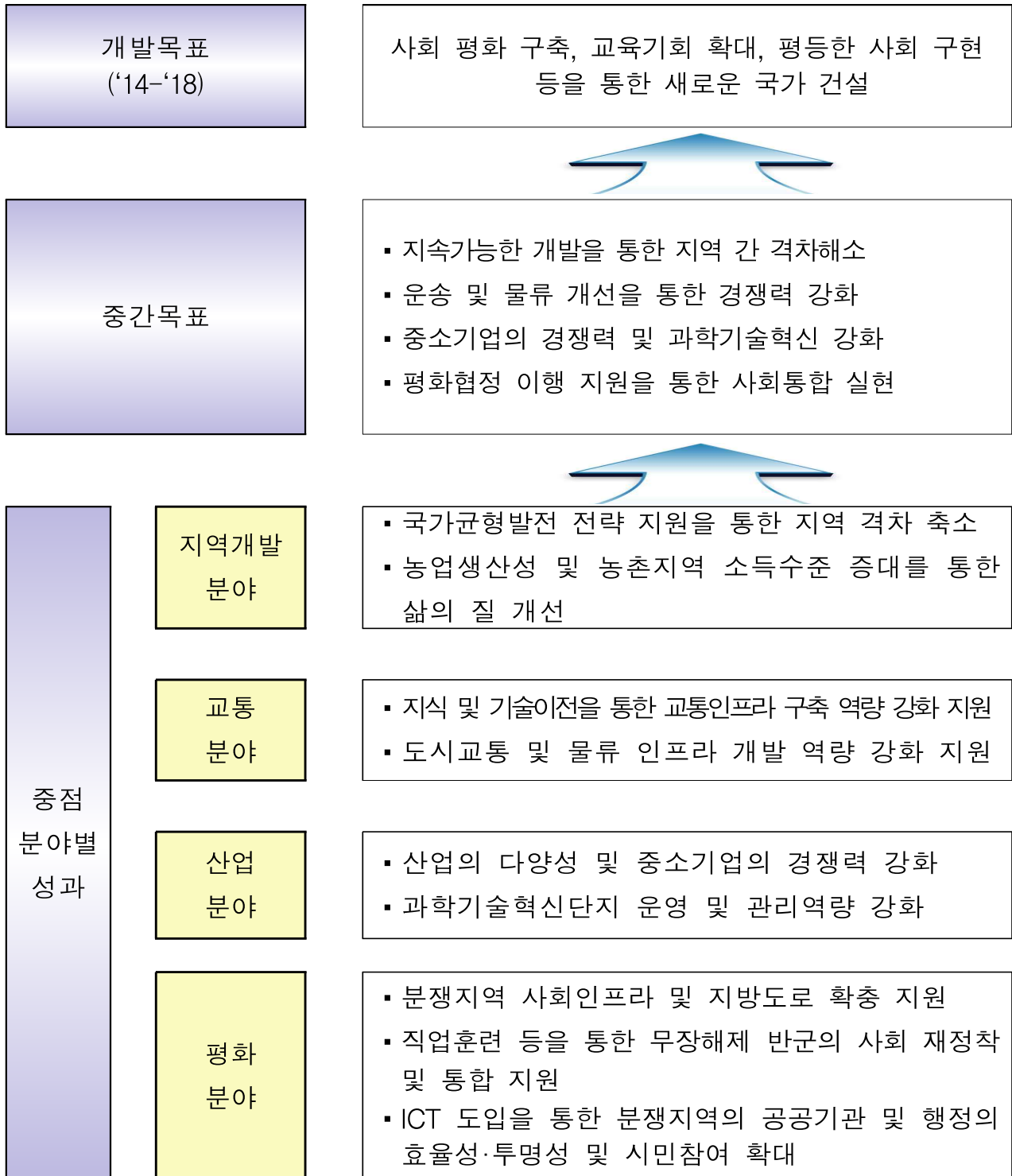
- 콜롬비아 정부 및 타 공여기관 간 원조조화를 위한 협의체(Grupo de Cooperantes)가 구축되어 있으며, 공여국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추진함.
- 공여국간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의견교환을 토대로 콜롬비아 정부 측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 2009-13년간 총 해외원조액은 총 48억1,100만 달러이며, 전체원조 중 무상원조액이 41억1,100만 달러(85%), 유상원조액이 6억6,800만 달러(14%)임 (집행액 기준).
- 동기간 분야별로는 다분야(30%), 공공행정 및 시민단체(26%), 농업(11%), 교육(7%), 교통(3%)등이 상위분야를 차지함.
-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미국(56%), 프랑스(15%), 독일(12.5%), EU기관(12%), 스페인(10%) 순임.
- 미국 : 콜롬비아 정부와 연계하여 법 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건강, 교육 서비스 등을 중점 지원함
- 프랑스 : 도시 및 환경, 불평등 해소 및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중점 지원함
- 독일 :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자연생태 보호를 중점 지원함.

III. ODA 추진시 고려사항

- 콜롬비아의 분쟁이후 상황에 대비한 원조 공여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① 무장해제자-분쟁피해자 간의 화해 및 사회재통합 지원, ② 반군 점령지역에 대한 기초 생활여건(주택, 식수, 전기, 가스, 교육 등) 개선 및 ③ 주요 인프라(상·하수도, 도로, 병원, 학교 등)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총 길이 1,370km에 달하는 4세대 도로망 구축 및 보고타 지하철 1호선 건설 등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동 분야에 특화된 ODA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함.
- 2015년 한-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여 콜롬비아 ① 농업 분야에 대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농촌개발, ② 자동차 부품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추진 시 고려해야함.
- 2025년까지 중남미 국가들 중 최고의 교육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콜롬비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교육 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기회 접근성 강화, 교사 역량 강화, 공립학교-사립학교 간 격차 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 ODA 전략 수립 검토가 필요함.
- 2014-18년 국가개발계획의 중점정책을 반영하며 향후 국가개발계획 추진 시기에 맞추어 우리 CPS 기간 설정을 고려해야 함.
- 산토스 정부 제2기 집권동안 중점추진 분야로서 발표한 농촌, 교육, 보건, 치안, 환경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고려 및 반영이 필요함.
- 콜롬비아는 2015~16년 OECD에 가입할 예정이며 중남미 신흥공여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의 출구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함.

IV.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 (지원 목표) 콜롬비아의 고소득국가 도약을 위해 국가개발계획 (2014-2018)의 '평등', '평화', '교육' 등 3대축과 '인프라개발', '사회적 이동성 확대', '농촌개발', '사회 안정성 제고', '녹색성장', '좋은 정부' 등 6대 전략 이행을 위한 지원
- (중점협력분야 선정기준) 콜롬비아의 국가개발전략 및 부문별 실행 계획, 수원국 요청분야, 양국 간 정책협약, 한국의 비교우위, 기존 진행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함.
- (중점협력분야)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지원
 - ① (지역개발) 지속가능한 농촌 및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 ② (교통) 운송 및 물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③ (산업) 정책자문 및 기술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및 과학기술 혁신 수준 강화
 - ④ (평화)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통한 분쟁지역 개발 및 사회통합 실현
- (실행 전략) 對 콜롬비아 지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3대 가치를 추구
- (전략 기반) SDGs 달성목표, DAC 권고사항, 부산선언 및 ODA 선진화 방안을 준수함

(1) 지역개발 분야

□ 개발수요

- 콜롬비아 농촌지역은 대도시 및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비해 절대 빈곤율이 3배 이상 높고, 도로 및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공공 서비스 접근성도 열악하여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큼.
- 농촌지역은 도로 및 관계시설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낮고, 대부분의 농촌 개발이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생산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토지의 불법 점유 및 이용과 목축업의 과도한 확대 등은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
-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재배작물을 다양화하고 도로 및 관계시설 등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 시킬 계획임.
 - 아울러, 학교, 보건소,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급격한 도시화는 콜롬비아가 직면한 과제로서 교통, 환경오염, 안전 및 천재지변 등 도시문제를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역량 강화 필요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개선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및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음.
- 한국은 도시 주택 및 뉴타운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등으로 단기간에 도시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개선

(2) 교통 분야

□ 개발수요

- 콜롬비아는 세계 경제포럼(2014-2015)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66위 달성
- 그러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족은 콜롬비아의 사회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소로서 높은 물류비용에 따른 내수 시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콜롬비아의 교통인프라는 세계 순위는 도로 126위, 철도 102위, 항만 90위, 공항 78위로 아시아 신흥국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 (ANI) 및 National Development Finance (FDN) 등을 설립하였으며, 민간자본 유치에 위해 PPP법을 도입하고, 연간 GDP의 3% 수준을 교통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임.
-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콜롬비아 정부는 복합운송수단 마스터플랜 (2015-2035)을 발표(15.11월)

- 동 마스터플랜에서는 수출입 활성화, 지역간 통합 및 물류비용 개선 등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방안 및 우선사업 순위 선정
- (도로) 도로를 통한 화물운송량 비율은 71%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도로 포장률은 11.8%으로 매우 낮고, 포장도로의 50%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정부는 PPP등을 통하여 4차 고속도로 양허사업(연장 8,000km)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 규모는 약 51조 페소 수준임.
- (철도) 콜롬비아 철도 화물운송량 분담률은 27% 수준으로 석탄 운송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양허사업 등을 통해 1,769km를 철도망을 확장할 계획임.
- (내륙수운) 교통수단의 다양화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내륙 수상 운송 시설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강을 활용한 운송 수단 활성화 마스터플랜 발표(2015)
- (항만) 항만을 통한 물동량은 연간 183백만톤('13)으로 2002년 대비 150%의 증가하였고, 파나마 운하 확장에 대비하여 대서양 및 태평양연안의 공공항만 확장을 계획 중임.
- (공항) 2014년 기준, 약 58백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하였고 전년 대비 7.61% 증가하였음.
 - 보고타 엘도라도 공항 이용객은 전체의 47.25%로 콜롬비아 정부는 증가추세에 있는 엘도라도 공항 이용객에 대비하여 보고타 인근에 신공항 건설을 구상 중에 있음.
- (대중교통) 콜롬비아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 높은 도로 파손율 등의 문제를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임.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단기간에 전국도로 교통망을 확장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투자, 법률 및 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콜롬비아 정부가 교통 정책을 수립·실행하는데 지원 가능
- (도로 및 철도) 한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도로 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차량제작, 신호체계 구축 등 철도인프라 분야 경쟁력도 우수
- (항만 및 공항) 한국은 항만 및 공항 건설·운영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공항운영 컨설팅 및 항만 개발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가능

[3] 산업 분야

□ 개발수요

- 콜롬비아 경제는 개방경제로서 외국인투자 및 민간부문의 역할이 활발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2004년 이후 유가 상승으로 GDP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농업 및 제조업이 위축되었음.
- 원자재 중심의 산업 구성은 낮은 고용 효과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변동성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임.
- 이에 따라, 콜롬비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구성 및 수출 기반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 역량 강화 필요

- 한편, 콜롬비아는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동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전자, 자동차, 통신, 조선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하였음
- 한국은 다양한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발전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4) 평화분야

□ 개발수요

- 콜롬비아 국가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50년간 지속된 정부와 반군간 내전으로 특히 분쟁지역에서 폭력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생활 수준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에서도 여타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정부-반군간 협상중인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분쟁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국가개발계획의 평화구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정부는 내전 종식 및 평화 구축을 위하여 평화 관련 부처를 신설(2015년)하였고,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평화협상 주요 내용은 분쟁지역 개발, 반군의 정치 참여기회 제공, 불법작물 대체, 반군의 무장해제 및 사회 재정착,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 등임
-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신속이행전략(Rapid Response Strategy)을 수립하여 평화협정 체결 직후 18개월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1) 분쟁지역의 사회인프라 및 지방도로 구축 지원

- 분쟁지역의 학교, 시장, 도로 등 지역공동체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무장해제 반군과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신뢰회복 필요
 - 콜롬비아의 많은 농촌 지역은 분쟁으로 인해 학교,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이 파괴되어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소규모 지역 공동체 인프라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보건 등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분쟁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평화구축 계획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대 도모
 - 사회 인프라 개선 사업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분쟁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개선은 물론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적 고립을 초래하여 경제·사회적 통합을 지연 시키고, 반군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배경으로 작용

- 평화협정의 이행과 평화 정착을 위해 고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및 개선과 지역간 교류 활성화 필요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소득증대 그리고 농촌공동체 활성화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2) 직업훈련 등을 통한 무장해제 반군의 사회 재정착 및 통합 지원

- 평화협정 체결 이후 무장 해제 반군의 재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사회 경제 재통합 정책(National Policy on Social and Economic Reintegration)"을 추진 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하나원의 직업교육 훈련 등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음.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지식 및 경험 전수를 통해 콜롬비아 평화구축과 사회 통합 역량 강화에 기여 가능

3) ICT 등을 활용한 분쟁지역의 기관역량 강화와 공공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시민참여 확대

- 콜롬비아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패척결과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행정시스템 현대화 및 법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의 부패 지수는 세계 168개국 중 83위(37점)로 낮은 수준이고, 최근 Latino Barometro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부패지수가 2번째로 높은 국가로 나타남.

-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예산부족 및 재정관리 미숙으로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시민들의 공공부문 감시 강화와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및 부패 척결을 위한 공공행정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전자정부 도입과 인터넷 보급률을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계층간의 불균형 해소와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 정부는 선진화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혁신, 행정개혁, 부패척결에 큰 성과를 이루었고, 세계 여러 국가에 전수한 경험이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훌륭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3

분야별 지원방안

(1) 지역개발 분야

□ 기본방향

-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개발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지원

□ 실행계획

- 농촌의 시장접근성, 소득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체계 등 가치사슬 강화하고 수출 가능 품목 확대
- 분쟁 피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현대 농업기술 전수 및 농민 역량강화
- 토지 및 경제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등 기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 주택 및 신도시 건설 지원
 - 한국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신도시 마스터 플랜수립 등 기술 협력 지원

(2) 교통 분야

□ 기본방향

- 콜롬비아의 교통·물류 인프라 정책을 기반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 컨설팅, 지식 및 경험 전수,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콜롬비아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달성에 기여

□ 실행계획

- 철도, 지하철, 공항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KSP를 통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 개발 경험과 지식 공유
-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 자문 및 협조용자 참여

(3) 산업 분야

□ 기본방향

- 정책 컨설팅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 실행계획

- 자동차 부품, 전자, 식품 가공 등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정책자문 등을 제공하여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및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협력 지원

(4) 평화 분야

1) 분쟁지역의 사회인프라 및 지방도로 구축 지원

□ 기본방향

- 콜롬비아 평화재건부에서 추진 중인 분쟁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확충 전략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지역간 교류 확대 지원

□ 실행계획

- 도로, 학교 및 보건소 등 최소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분쟁지역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

2) 직업훈련 등을 통한 무장해제 반군의 사회 재정착 및 통합 지원

□ 기본방향

- 사회 재정착 프로그램 개선 및 지원을 통한 반군 집단과 분쟁지역 주민간 화해와 신뢰회복을 지원하여 빠른 사회 통합 실현

□ 실행계획

- 한국의 탈북민 적응 지원을 위한 하나원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공유 및 전수

3) ICT 등을 활용한 분쟁지역의 기관역량 강화와 공공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시민참여 확대

□ 기본방향

- 전자정부 시스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실행계획

- 공공행정의 현대화 및 공공분야 혁신, 부패방지, 개혁, 조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콘텐츠 개발 및 ICT 연수센터 지원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4

결과물

수원국 개발목표(콜롬비아 국가개발전략)

: 사회 평화 구축, 교육기회 확대, 평등한 사회 구현 등을 통한 새로운 국가 건설

CPS 목표

: 지역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산업 및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평화구축 지원을 통해 콜롬비아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축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지역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 전략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축소 - 농업생산성 및 농촌지역 소득수준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부족 -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소득 수준 개선 -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p>CPS 적합성 해당 분야 사업이 CPS 목표 달성에 적절히 발굴되었는지 여부</p>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교통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지원 - 도시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발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부족 -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 이용률 저조 - 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교통시스템 역량 강화 - 도시 교통 인프라 효율성 개선 -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이행 지원 - 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 	<p>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p>

<p>산업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다양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혁신 단지 운영 및 관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변화 - 법규 및 제도 미비 - 관련 인프라 미비 - 유관기관간 협력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정책 역량 강화 -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 과학기술혁신 인적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관련기관 설립 계획 수립 	
<p>평화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지역의 사회인프라 및 지방도로 구축 지원 - 직업훈련 등을 통한 무장해제 반군의 사회 재정착 및 통합 지원 - ICT 등을 활용한 분쟁지역의 기관역량 강화와 공공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시민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재정착 및 통합을 위한 교육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콜롬비아간 비경제분야 협력 확대 - 사회통합 프로그램 선진화 	

V.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민관협력) 콜롬비아의 경제수준 향상, 사업의 대규모화, 채무관리 강화 등을 감안, 민간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NGO 등과도 협력 강화
 - 상위중소득국(UMIC)에 해당되는 콜롬비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대해 원조자금·정책금융·민간투자 등의 패키지형 금융을 활용한 PPP 방식 지원 추진
 - 국내 및 콜롬비아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정보 공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원조 투명성과 국민 지지기반 확보
- (원조 조화) 중점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여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망 협조용자 사업 발굴
 - 콜롬비아 정부와 선진 공여국, MDB 등이 합동으로 운영 중인 회의체에 적극 참여
 - WB 협조용자 MOU(3억불), IDB 협조용자 퍼실리티(1억불) 등을 적극 활용해 유망 협조용자 사업 발굴
 - MDB 협조용자를 '16~'20년 총 승인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트너 기관도 GCF, CAF 등으로 다양화
- (유·무상 연계) 사업 전단계의 유·무상 연계를 통해 유망 원조사업 발굴 및 사업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사업 발굴 단계부터 정책자문(KSP, DEEP 등), 무상 기술협력(교육, 운영 인력, 기자재 등), 비구속성 유상 금융협력(대규모 건설·운영자금 등) 등을 콜롬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패키지형 연계 추진

- 유·무상 합동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중점분야별로 원조총괄부처 및 수원부처와 합의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해 콜롬비아와 공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
 -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 강화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 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삼각협력) 한국과 콜롬비아는 제3개도국 경제개발 공동지원을 위해 삼각협력 추진 협의
 - 제3개도국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삼각협력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공동으로 사업 추진

2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수용하여 정합성 제고 필요
 -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지역개발 경험 전수를 통해 빈곤·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 마련
 -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 (아래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참고)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성별 노동활동 패턴, 성별간 관계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예 : 여성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 ③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규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15.8.24) 참고

VI.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중점협력분야별 제약요인과 관리 방안을 명시하여 위험 예방과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리스크 매트릭스>

위험 요인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정치적 혼란)	2018년(대선 및 총선)
2.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 지연	상 시
3. 국제유가하락 위험	상 시
4. 기타 경제, 자연재해, 공여국간 협력 악화 등 일상적 위험 요인	연 1회

2 평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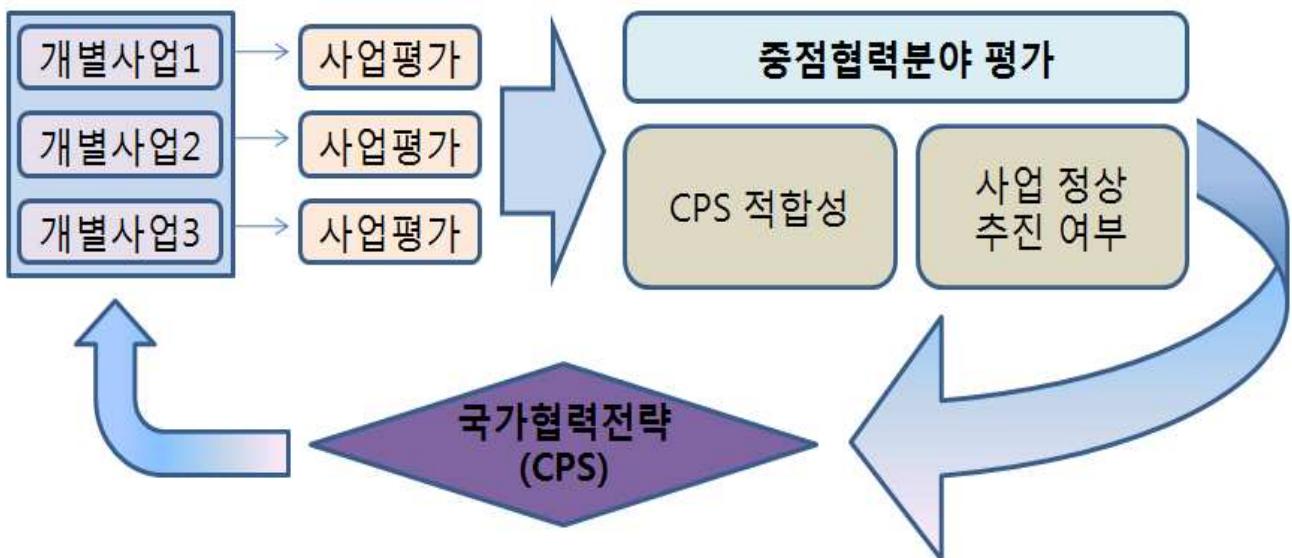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결과평가틀'을 기반으로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소위원회 주관의 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실시

* 단 시행기관 자체평가지 그 결과에 대해 평가소위의 심의 의결 필요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필요시)	CPS 적용 2-3년 후	국조실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필수)	CPS 종료 6개월 전	국조실, 시행기관(자체평가)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서는 평가소위의 심의·의결 필요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들 평가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사후 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 종료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

<참고 1> 콜롬비아 주요 경제 지표

	경제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국내 경제	G D P	억불	3,363	3,698	3,784	4,001	4,271
	1인당 GDP	달러	7,305	7,938	8,031	8,394	8,859
	경제성장률	%	6.6	4.0	4.7	4.8	4.5
	국내총투자/GDP	%	23.8	24.0	24.6	25.0	25.0
	실업률	%	10.8	10.4	9.7	9.3	9.0
	재정수지/GDP	%	-2.0	0.1	-0.9	-1.5	-1.3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3.2	2.0	2.8	2.6
대외 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Ps	1,848.0	1,798.0	1,868.9	1,971.6	2,089.9
	경상수지	백만달러	-9,715	-11,590	-12,410	-15,410	-16,150
	경상수지/GDP	%	-2.9	-3.1	-3.3	-3.9	-3.8
	상품수지	백만달러	6,147	5,184	2,998	-697	-526
	수출	"	56,666	59,823	58,029	56,049	58,068
	수입	"	50,518	54,640	55,031	56,746	58,595
	서비스수지	"	-5,186	-5,798	-5,915	-5,924	-5,481
	FDI 순유입	"	5,101	16,135	9,120	11,934	13,237
	유입	"	13,406	15,529	16,772	16,934	17,237
	유출	"	8,304	-606	7,652	5,000	4,000
	외환보유액	"	31,386	36,444	42,758	44,142	..
외채 현황	정부채무/GDP	%	35.7	32.0	35.1	34.6	33.5
	국내정부채무/GDP	"	23.8	20.7	22.4	21.7	20.9
	해외정부채무/GDP	"	11.9	11.3	12.7	12.9	12.6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77,597	81,240	97,591	100,735	103,566
	총외채잔액/GDP	%	23.1	22.0	25.3	25.9	25.3
	단기외채	백만달러	12,284	12,810	17,650	17,357	..
	외채상환액/총수출	%	26.3	34.5	28.8	41.8	4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4)

주: e=estimate, f=forecast

<참고 2> 콜롬비아 주요 인프라 지표

지표	순위 (총 144개국)	지표값
전반적 인프라	108	3.4
도로 인프라	126	2.7
철도 인프라	102	1.5
항만 인프라	90	3.7
항공수송 인프라	78	4.1
이용 가능한 항공 (available airline seat kms/ week, millions)	39	563.8
전력 공급	60	5.1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87	104.1
100명당 유선전화	77	14.8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4)

주: 이용 가능한 항공과 100명 당 휴대폰 가입자 및 유선전화 항목을 제외한 지표값은 7점 만점임.

<참고 3> 콜롬비아 주요 사회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인간개발지수*	0.655	0.680	0.706	0.710	0.708	0.711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45	42	42	43	44
1인당 GNI (Atlas, 달러)	2,340	2,930	5,480	6,100	7,020	7,590
초등학교 취학률	119	120	115	-	-	-
초등학교 수수료율	95	104	113	-	-	-
중학교 취학률	72	82	96	97	93	93
중학교 수수료율(lower secondary)	-	75.2	91.3	89.4	85.8	71.7
모성사망률(10만 명당)	130	97	85	-	-	83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2	21	19	18	17	17
HIV/AIDS 발병률(15-49세)	1	1	1	1	1	1
결핵 발병률(10만 명당)	43	38	34	34	33	32
기대 수명	71	72	73	74	74	74
홍역 예방접종 비율(12-23 개월)	88	96	88	88	94	92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90	91	91	91	91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75	77	79	80	80	-
초·중등학교 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 비율	104	103	104	-	-	-
성불평등지수(GII)*	0.522	0.506	0.466	-	-	0.460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	0.593	0.654	0.694	0.696	0.699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주: 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GII),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Human Development Index(<http://hdr.undp.org/en/data>) 참고함.

< 참고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 2012-2015, 관계부처합동.
한국수출입은행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4),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IDB (2014), Country Strategy with Colombia 2012-2014, IDB.
World Bank (2010),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The Period 2011-2015
World Bank (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Colombia, UNDP.
UNDP (2014),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4, UNDP.

Kotra 국가정보 www.kotra.go.kr

OECD Country Report System, stats.oecd.org